

# 鶴峯 金誠一과 安東지역의 退溪學脈

權 五 榮\*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학봉의 제자교육과 그 학맥의 학문 |
| 2. 학봉의 퇴계문화에서의 수학 | 1) 학봉의 제자교육           |
| 1) 생애와 가학         | 2) 학봉학맥의 학문활동         |
| 2) 퇴계문화에서의 수학     | 4. 퇴계-학봉학맥의 전개        |
|                   | 5. 맺는 말               |

## 1. 머리말

退溪學脈의 지역적 전개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퇴계 李滉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의 퇴계학맥은 이 지역이 이황이 태어나고 講學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 복잡하고 다기하다. 특히 학봉 김성일학맥의 경우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그 학문집단이 더욱 번창하여 세부단위까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김성일은 이황으로부터 성리학, 예학, 역사, 천문학 등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임진왜란 때는 구국활동에 적극 앞장섰다. 이미 이러한 김성일의 학문과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sup>

김성일의 학맥을 이은 인물은 주로 虎溪書院(廬江書院)과 臨川書院, 高山精舍, 晚愚亭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학문적·사회적 입지를 확보하고 활동하였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수연구원

1)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조선 후기 이들은 영남전역이나 안동지역의 유림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면서 때로는 학문연원 단위로, 때로는 문중 단위로 조직화하여 적극 대처해 나갔다. 즉 김성일학맥의 인물들은 儒疏나 척사운동, 의병운동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과정에서 이황문화에서의 김성일의 수학과정을 검토하고 그 학맥의 개략적인 학문 내용과 학적 계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 후기 퇴계학맥이 전개한 여러 활동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특히 안동지역에서의 퇴계학맥의 전체적 구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2. 학봉의 퇴계문화에서의 수학

### 1) 생애와 가학

#### (1) 생애

김성일은 1538년 12월 6일 안동의 임하 내앞(川前)에서 태어났다. 1543년(6세)에 『효경』을 배웠다. 1555년(18세) 12월에 부인 安東權氏(部將 德鳳의 딸)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1563년 김성일은 누나(柳城의 부인)가 일찍 남편을 잃고 3년상을 마치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自盡하자, 생질 柳復起·柳復立 형제를 가르치면서 자기자식처럼 대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알뜰히 家業을 경영하게 도와주었다.

1580년(43세) 김성일은 아버지 김진의 상을 당하자, 상례와 장례는 『家禮』와 『儀禮』를 따라 치렀고, 杜佑의 『通典』과 丘濬의 『家禮儀節』 등을 참고하였다. 김성일은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이 무렵 崔暉 등이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다. 1581년(44세) 『喪禮考證』을 지었다.

1582년(45세) 7월에 김성일은 金溪로 이주하였다. 금계로 이주한 이유는 처

가가 금계부근이고, 동문 權好文의 주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듬해 7월에 나주목사에 임명되어 8월에 부임하였다. 1584년(47세) 봄에 나주에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을 모시는 大谷書院을 세워 학자들이 스승으로 삼을 바를 알게 했고, 여러 학생들과 經義를 강론하였다.

1585년(48세) 8월에 이황의 『聖學十圖』와 『溪山雜詠』을 간행하였다. 김성일의 이러한 노력은 이황의 학문적 핵심이 「성학십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우선 「성학십도」를 간행하여 이황의 학문의 핵심을 널리 알리려고 한 것이었다.

1586년(49세) 가을에 김성일은 『朱子書節要』와 『退溪自省錄』을 발간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자를 책장 속에 비장하여 후생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계의 흠이라 하면서 『儀禮圖』, 『鄉校禮輯』과 함께 발간하였다. 이처럼 김성일은 『성학십도』와 『주자서절요』 등을 발간함으로써 이황의 학문의 전파에 충실한 역할을 다하였다.

1587년(50세) 금계에 '石門精舍'를 지었다. 김성일은 권호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는데, 일찍이 산을 나누어 함께 살자는 '分山の約'을 맺었다.<sup>2)</sup> 이 해 趙穆·柳成龍 등과 함께 『退溪文集』의 교정과 編次를 정하였다.<sup>3)</sup> 그리고 겨울에 『奉先雜儀』와 『吉凶諸規』를 지었다.

1588년(51세) 『퇴계문집』의 교정본을 일일이 검토하고 교정이 미진한 곳은 標를 붙여 善本을 만들어 나가 교정과 편집을 완성하였다.<sup>4)</sup>

1591년(54세) 陶淵瀑布의 남쪽 언덕에 玉屏書齋를 세웠다. 언덕은 藏六이라 칭하는데 仙遊亭 북쪽에 위치하며 蒙學이 학습하는 장소로 삼았다. 1593년(56세) 4월 임진왜란 중에 淸州의 公館에서 작고하였다.

2) 김성일의 '석문정사'와 권호문의 '鳶魚軒'은 조선 후기에 김성일학맥의 유림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

3) 『鶴峯文集』 권4, 書, 與趙月川 丁亥.

4) 『鶴峯文集』 권4, 書, 與趙月川, 答趙月川.

## (2) 가정교육

김성일 집안의 안동거주는 7세조 金居斗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뒤 김성일의 증조부 金萬謹이 임하의 海州吳氏에게 장가들어 내앞에 살게 되었다. 김성일의 아버지 金璣은 金克一·守一·明一·復一 등 여러 아들을 두어 조선 후기에 그 후손은 知禮, 菊蘭, 大谷, 臨河, 新德, 秋月, 金溪, 綱川 등으로 세력이 확산되어 나갔다.

김진은 아버지 金禮範의 명으로 16세에 청송에 거주하는 맏고모부 權幹의 문하에 나아가 詩禮를 배웠다. 그는 뒷날 여러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기에 이른 까닭을 아는가? 진실로 스승이 나를 가르쳐준 부지런함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이미 軍伍에 편성되었을 것이다. 나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못했으니 지하의 명령을 볼 수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sup>5)</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김성일 가문의 학문적 발전은 김진이 권간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진은 교육에 대단한 열정을 가져 내앞 건너에 있는 傅巖 곁에 서당을 짓고 學舍를 만들어 수 십 년간 자제 및 시골의 수재를 모아 엄격하게 교육하였다. 또한 만년에는 英陽 靑杞에 거주하면서 서당을 세워 그곳 주민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학의 배경 위에서 김성일 형제가 이황의 문하에 출입함으로써 안동뿐만 아니라 영남에서 名家로 부상하였다.

한편 김진은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가문의 흥폐는 반드시 奉祭祀에 말미암으니 어찌 제사를 삼가하지 않고 능히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제사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처럼 김성일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부암서당에서 공부하고, 또 봉제사에 철저한 아버지의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 2) 퇴계문하에서의 수학

김성일은 10대 후반에 동생 金復一과 함께 紹修書院에서 글을 읽다가 탄식해 말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다만 과거공부를 힘쓰고 爲己의 學을 알지

5) 『鶴峯文集』 권7, 墓碣銘, 先祖考秉節校尉府君墓碣銘 乙亥.

못하니 매우 부끄럽다. 退溪先生은 지금의 儒宗이니 어찌 가서 가르침을 구하지 않겠는가?”하고, 1556년(19세) 이황의 문하에 나아가 학업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김성일이 처음 이황을 배알할 때 이황의 좌우에는 圖書가 놓여 있었고 잠을 피우고 靜坐하고 있었다.

1558년(21세) 6월에 김성일은 김복일과 함께 『書傳』을 읽었다. 김성일은 책과 양식(보리·쌀·나물뿌리)을 싸 가지고 이황의 문하에 나아가 학업을 익혔다. 이황은 두 형제의 학구열이 진실하고·돈독함을 가상히 여겨 기대와 인정을 하였다. 이 무렵 이황은 “金士純이 陶山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데 極熱을 무릅쓰고 산을 넘어와 왕래하면서 질의를 한다. 이 사람은 민첩하고 학문하기를 즐기니 그와 더불어 공부를 함께 하니 매우 유익함을 느끼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황은 김성일에 대해 “행실이 높고 학문이 정치하니 내 눈 속에 그에 비길 만한 인물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1557년 7월에 이황은 『易學啓蒙傳疑』를 완성하였는데<sup>6)</sup> 바로 이듬해 가을에 김성일은 禹性傳과 李安道, 金富儀·金富倫·琴應燠 등과 함께 이황의 문하에서 『역학계몽』을 익혔다. 이때 이황은 “김성일과 우성전이 뜻한 바가 매우 좋고 『역학계몽』의 공부에 전념하여 마음을 쓴 절실한 정성이 이와 같으니 무엇을 구하면 얻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배운들 이루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sup>7)</sup>

1558년 겨울에 김성일은 金明一과 함께 이황에게 『心經』과 『大學』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질의하였고, 또 이듬해 11월에 『大學』과 『太極圖說』 등을 배웠다. 1562년(25세) 가을에 김성일은 『朱子書節要』를 배웠다. 그리고 1564년(27세)에 亦樂書齋에서 동문들과 활발하게 학문토론을 하였다.<sup>8)</sup>

1566년(29세) 이황이 김성일에게 堯舜이래 心學의 道統을 적은 「屏銘」을 써 주었다. 이해 김성일은 여러 형제와 함께 陶淵의 仙遊亭에서 학업을 익혔다.

1569년(32세) 김성일은 이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向裏用功, 振勵自新(내면으

6) 『退溪文集』 年譜, 권1, 丁巳條.

7) 『退溪續集』 권2, 詩, “溪上與金愼仲惇敘金士純琴燠之禹景善, 同讀啓蒙, 二絕示意, 兼示安道孫兒; 『鶴峯文集』 附錄, 권3, 言行錄.

8) 『退溪續集』 권2, 詩, 寄亦樂齋諸君文會 甲子 ○ 諸人構茅舍於西麓, 名曰亦樂.

로 공부하여 진작하고 힘써 스스로 새롭게 됨)'의 8자를 강조하였다. 이황은 이 8자가 좋으나 자기생각은 "敬과 義를 夾持하고 思와 學을 相資하는 것보다 더 요점은 없다."고 하였다.<sup>9)</sup> 여기서 이황이 김성일에게 '敬義'와 '思學'을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황은 경과 의, 사와 학을 통하여 내면과 외면, 사색과 탐구를 함께 강조하는 학문태도를 제시하였다.

이황은 김성일에게 "사람이 마음을 굳게 가지기가 가장 어려우니 일찍이 스스로 징험하니 한 걸음을 걸을 때 마음을 한걸음에 두기가 또한 어렵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황의 가르침은 바로 한걸음에도 반드시 '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를 김성일이 장흥효에게 그대로 전수하였다.<sup>10)</sup>

김성일은 후일 이황의 '敎人'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후학을 가르치는데 싫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 이들을 대접하기를 벗과 같이 하고 마침내 師道로서 자처하지 않았다. 선비가 먼 곳에서 와 質疑를 하면 그 알고 깊음을 따라서 고하여 가르치니 반드시 立志로써 먼저하고 主敬과 窮理공부를 힘쓰게 하여 순순히 이끌어 도와주어 개발되면 이에 그친다."<sup>11)</sup>

이러한 이황의 '교인'에 대한 김성일의 설명은 당시 이황의 제자교육을 가장 잘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입지·거경·궁리는 김성일학맥이 한말 金興洛에 이르기까지 지켜나갔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황과 김성일의 학문토론의 일단을 살펴보자.

김성일 : 생각이 번잡하고 어지러운 까닭은 어째서입니까?

이황 : 무릇 사람은 理와 氣를 합해서 마음이 되니 理가 主가 되어 그 氣를 거느리면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 저절로 한가로운 생각이 없게 된다. 理가 主가 되지 못하여 氣가 이긴 바가 되면 이 마음이 어지럽고 고착되어 지극한 경지에 이른 바가 없고 샷된 생각과 망령된 생각이 서로 이르고 거듭 이르러 바로 뒤집혀진 수레의 바퀴

9) 『退溪文集』 권34, 書, 答金士純.

10) 『退溪言行錄』 存省, 金誠一錄.

11) 『退溪言行錄』 敎人, 金誠一錄.

가 헛돌듯이 한 번 숨쉬는 순간에도 안정됨이 없을 것이다.

이황 : 사람들은 생각이 없지 아니할 수 없으니 다만 한가한 생각을 제거해야 할 뿐이다. 그 요령은 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敬하면 마음이 문득 하나로 되니 하나이면 생각이 스스로 고요해진다.<sup>12)</sup>

위의 김성일과 이황의 答問에서 보면 이황의 김성일에 대한 교육내용의 대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心은 理와 氣를 합한 것이며 이가 주가 되어 기를 거느려야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이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가한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오직 '敬'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성일은 『大學』을 읽다가 理氣에 대해 이황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이황은 “君은 아직 『太極圖說』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것 같다. 곧 지금 『太極圖說』을 읽어라.”라고 했다. 또 이황은 말하기를 “『태극도설』가운데 ‘君子는 이것을 닦아 깃하고 小人은 이것을 어기어 凶하다’라는 두 구절은 학자가 가장 신경을 써야할 곳이니 닦는 것과 어기는 것은, 다만 공경하고 放肆하는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sup>13)</sup>

김성일은 『역학계몽』을 배우면서 “이 글은 初學의 공부에 친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고 하자 이황은 “만약 이 글에서 熟讀하여 자세히 오래 음미하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 무엇이 친절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sup>14)</sup> 이로써 보면 이황은 『성리대전』의 「태극도설」, 「西銘」, 「역학계몽」 등의 글을 성리학공부의 입문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글을 통하여 이황은 제자들과 理氣論을 토론하였다.

김성일은 이황에게 理자의 뜻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약 先儒의 ‘배를 만들어 물위에 가고 수레를 만들어 육지를 간다.’는 설을 좇아 자세히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다 추측할 수 있다. 무릇 배는 마땅히 물 위를 가고 수레는 마땅히 육지를 가야하니 이것은 理요, 배로써 육지를 가고 수레로써 물 위를 가는 것은 그 理가 아니다. 임금은 마땅히 어질어야

12) 『鶴峯續集』 권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

13) 『退溪言行錄』 敎人, 金誠一錄.

14) 『退溪言行錄』 讀書, 金誠一錄.

하고 신하는 마땅히 공경해야 하며, 아버지는 마땅히 자애로워야 하고 아들은 마땅히 효도해야 하니 이것이 理요, 임금으로서 어질지 못하고 신하로서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자애롭지 못하고 아들로서 효도하지 못하면 理가 아니다. 무릇 천하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는 理요, 마땅히 행하여서는 안될 바는 理가 아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이의 實處를 알 수 있다.”<sup>15)</sup>

김성일은 이황에게 “솔개는 하늘에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 뜬다(鳶飛戾天, 魚躍于淵)는 것과, 일이 있으면 기필은 하지 말고 잊지는 말고 助長하지 말라(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는 것이 뜻이 같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한 데 이황은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뜬다는 것은 天地의 化育이 유행하여 상하에 밝게 나타나는 것이니 이 理의 用이 아님이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오직 無欲한 때문에 理氣가 유행함에 자연히 一息의 그침도 없다. 사람 또한 반드시 일이 있을 때 기필하거나 생각을 버리거나 또 조장하는 병폐가 없다면 마음의 本體가 드러나며 그 妙用이 밝게 행해져서 한번 숨쉬는 사이의 間斷도 없다. 즉 그 마음의 모습이 天地의 조화와 발육의 本體와 같다.”<sup>16)</sup>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성일은 「성학십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퇴계언행록』에 기록하였다.<sup>17)</sup> 이러한 김성일의 이황으로부터의 학문수업은 그뒤 그를 이은 학맥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김성일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禮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sup>18)</sup> 그는 주로 당시 예를 실천하다가 발생하는 疑禮와 變禮에 대하여 이황에게 질의하였다. 그는 상례, 장례, 제례 등에 대하여 이황에게 세세한 부분의 문제까지 질의하여 行禮의 근거자료로 삼았다. 김성일의 問禮와 이황의 답은 그 뒤 안동지역과 영남지역의 행례와 예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退溪言行錄』論理氣, 金誠一錄.

16) 『退溪言行錄』論理氣, 金誠一錄.

17) 김성일은 이황의 이기론의 결론이 담긴 「성학십도」에 대한 이황과 宣祖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退溪言行錄』講辨, 金誠一錄).

18) 김성일의 禮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는 李相殷의 「鶴峯先生の學問思想의 傾向」과 金彥鍾의 「鶴峯先生の 禮學」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1993).



한편 김성일은 역사서술과 포폄문제 등에 대하여 이황에게 질문하였다. 그는 역사기록을 맡은 春秋館의 분위기는 다만 당번 사관 1명에게 책임을 맡기고 다른 사람은 간여하는 바가 없으니 國史를 믿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 때문이고, 新進의 사관은 조정의 是非를 알지 못하고 그 기록하는 바의 것도 날씨의 흐림과 맑음, 朝報의 내용을 적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관이 쓴 일기가 정말로 조보와 같아 어느 누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관이 그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19) 그는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고자하면 奉教 이하가 날마다 돌아가며 入番하게 하고 1명이 기록한 바를 8명이 일제히 한 곳에 모여 토론하여 확정지어 의심이 없는 연후에 時政記에 넣는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였다.20)

한편 김성일은 燕山君이 宗社에 죄를 얻어 스스로 하늘로부터 끊음을 당했으니 立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한 洪暹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김성일은 죄가 있어 폐하는 것은 義이고, 後嗣가 없을 때 후사를 이어주는 것은 仁이라고 하였다. 仁과 義가 다 극진한 후에 일이 마땅함을 얻게 되니 입후하는 것이 禮가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21)

김성일은 端宗문제에 관한 일은 더욱 통탄스럽다고 하면서 이황에게 어떻게 해야 가한 것이냐고 질문하였다.22) 그는 1571년 端宗復位와 死六臣의 復爵을 청하는 소를 올리고 단종을 폐한 世祖도 權道를 행한 것으로 보면서, 이제 先祖가 萬世의 大義를 써서 端宗을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恩·義가 병행하고 經·權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23)

이러한 김성일의 역사인식은 그의 해박한 역사지식과 강건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사관으로서 직필을 강조했고, 또 의심스러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황과의 토론을 통하여 사실을 평가하고 서술하려고 하였다.24)

19) 『鶴峯續集』 권4, 書, 上退溪先生.

20) 『鶴峯續集』 권4, 書, 上退溪先生問目.

21) 『鶴峯續集』 권5, 雜著, 書燕山奉祀議得下 辛未.

22) 『鶴峯續集』 권4, 書, 上退溪先生.

23) 『鶴峯續集』 권2, 疏, 請魯陵復位六臣復爵宗親敘用疏 辛未.

24) 김성일의 史官論에 대해서는 姜周鎭의 「鶴峯先生과 道學政治」(『鶴峯의 學問과 救國

### 3. 학봉의 제자교육과 그 학맥의 학문

#### 1) 학봉의 제자교육

김성일의 제자교육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집안과 학맥은 안동 무실(水谷)의 전주유씨 집안과 그 학맥이다. 이 전주유씨 집안은 그 입향 시조 柳城이 金璉의 사위가 되어 무실에 거주하면서, 내앞의 의성김씨와 ‘돌고개’를 사이에 두고 수백 년 간 혈연과 학연을 유지하면서 지내왔다. 이러한 두 집안이 특히 학문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특히 김성일이 임동의 납실에 살 때 무실을 지나다니면서 생질 유복기 형제에 대한 교육과 각별한 보살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復起 형제가 10세 전에 부모를 잃고 외가에서 의지하여 길러졌다. 선생(김성일)이 어루만져 기르기를 매우 恩愛롭게 했다. 무릇 음식, 의복과 가르치는 일을 한결같이 자기자식처럼 대했다. 부모를 잃은 우리들이 이미 무실에 정착하고는 모든 일이 시작이어서 체계가 없었다. 선생이 더욱더 어엿비여겨 매번 납실에 왕래할 즈음에 비록 날이 어둡고 바쁠 때라도 반드시 직접 와서 먼저 안부를 묻고 다음으로 제사문제와 농작의 일을 물었다. 종을 엄히 戒飭하고 모든 것을 지도해주었으며, 또 몸을 계칙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라는 뜻으로 권면하고 계칙하였다. 우리들이 대강 문자를 분변하고 田業을 지키는 것은 추후도 모두 외삼촌의 힘이다.”<sup>25)</sup>

한편 1581년 김성일의 44세 때 선산의 崔暉이 김성일의 문하에 입문하면서부터 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광범위하게 모여들었던 것 같다.

최현(중질 山立에게) : 이 나라에 살면서 賢人을 섬기는 것은 禮이다. 鶴峯 선생은 지금의 賢大夫이다. 같은 道에 살면서 뵈지 못한 것이 가히 부끄럽다.

白見龍 : 김모를 보고자 하는가? 그는 우리 同門友이다. 지금 안동 임하에 시묘살이를 하고 있는데, 선비가 책보를 지고 간 자를 모두 거절하였다.

活動』, 1993) 참조.

25) 『鶴峯文集』附錄, 권3, 言行錄.

최현 :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현룡 : 다만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최현은 백현룡과 함께 임하에 이르러 김성일이 시묘하는 廬幕에 절을 하고 문인이 되기를 청하였다.

최현 : 蒙學小生이 依歸할 바가 없어 선생님께 절을 하게 되었으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김성일 : 南州에 어진 선비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그대가 진실로 정성스럽다면 뭐 스승이 없는 것이 근심이겠는가? 喪中은 講學하고 토론하는 때가 아니다.

최현 : 엄하여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원하건대 別齋에 있으면서 子弟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김성일 : 어리석고 용렬한 무리는 益友가 되지 못하고 齋舍도 좁고 누추하여 멀리서 온 사람을 머무르게 하기 어려우니 어찌하겠는가?

金克一 : 저 사람이 비록 젊으나 옳은 마음으로 왔으니 짐짓 머무르게 하여 그 뜻에 답하는 것이 가하겠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현은 齋舍에 거처하면서 김성일문하에서 학습하였다.

김성일(최현에게) : 자질이 이미 아름다운데 앞길이 또한 머니 그대는 힘쓸지어다.

최현 : 바탕이 둔하고 재주가 짧으니 썩은 나무는 새기지 못할까 바 두렵습니다.

김성일 : 사람은 立志가 정성스럽지 못할까 바 근심해야지 어찌 재주가 부족한 것을 근심해서 되겠는가? 재주가 있어도 小人이 되는데 면하지 못하고 재주가 없어도 君子가 되는 데 해롭지 않으니 학문이 爲己나 爲人이나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김성일 : '자신을 속임이 없어야 한다(毋自欺)'는 세 글자는 모름지기 종신 때까지 가슴에 지녀야 하니 善을 행하고 惡을 버림에 하나라도 정성스럽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최현 : 善惡은 어떻게 실제 볼 수 있습니까?

김성일 : 義利와 公私의 나뉘는 엄격하지 않을 수 없다. 털끝만큼의 은미한 차이도 천리나 멀어지니 학문을 하여 밝히는 데 있을 뿐이다.

최현 : 학문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김성일 : 훌륭하다! 질문이여. 학문은 章句와 文詞의 사이에 있지 않고 다만 日用事物上을 向하여 구해야 하니, 이른바 事上學이다. 그 근본

은 忠信을 主로하고 孝悌를 先세우는데 있으며 그 요점은 다만 放心을 수습하는데 있다. 물 뿌리고 비질하고 應對하는 것에서부터 齊家·治國·平天下에 이르기까지 그 節目의 차례와 공부의 先後가 순바닥을 보듯 쉬우니 순서를 따라 점점 나아가 實體를 깊이 살피는 데 있을 따름이다.<sup>26)</sup>

위의 대화에서 보면 김성일은 '立志', '誠意', '孝悌忠信'을 교육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毋自欺'를 종신 때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대학의 '八條目' 중에서도 특히 '誠意'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意'가 '善과 惡', '公과 私'의 갈림길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 '의'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 같다.

최현의 입문을 시작으로 김성일의 문하에는 배움을 청하는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종일 강의하고 토론하였다.<sup>27)</sup> 김성일의 교육은 '誨人不倦' 그 자체였다. 한번은 강의 중에 밥상이 들어오자 수업을 받던 諸生이 물러나기를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서 파하였다고 한다. 하루는 김성일이 마루 위에 앉아 있었는데, 제자 장홍효가 뵈기 위하여 발이 달는 대로 마음대로 걸어 올라가니 김성일이 꾸짖기를 제1보를 걸을 때는 마음이 제1보의 위에 있고 제2보를 걸을 때는 마음이 제2보의 위에 있어야 가할 것이라 하였다.<sup>28)</sup>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장홍효는 이항을 통해서 전수된 김성일의 '敬'공부를 다시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성일은 제자를 가르치다가 『宋史』富弼使契丹傳에 이르러 세 번 반복하여 낭낭하게 읽고는 무릎을 치면서 탄식하기를 "너희들은 아는가? 富公이 單車로 예측불허의 오랑캐의 뜰로 들어가 의연하게 굴하지 않고 國體를 尊重했으니 대장부가 변란을 만나서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sup>29)</sup>고 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교육했을 뿐아니라, 실제 일본에 가서도 외교에 있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뒤 임진왜란을 당해서는 경상도 각 지역의

26) 『鶴峯文集』附錄, 권3, 言行錄.

27) 『鶴峯文集』附錄, 권3, 言行錄.

28) 『敬堂集』권1, 錄, 鶴峰西厓兩先生言行錄.

29) 『鶴峯文集』附錄, 권3, 言行錄.

전투를 독려하면서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김성일의 아들 金濬은 아버지에게 『尙書』를 배웠다. 하루는 수업을 받는데, 김성일이 "앉아라. 내가 너에게 皇極·建極·民彝·五福에 대하여 말하겠다. '오직 皇上帝가 下民에게 衷을 내려주었다'고 할 때의 '衷'이 곧 '極'이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낚아 先知로 하여금 後知를 깨닫게 하고 先覺으로 하여금 後覺을 깨닫게 한다.'고 했으니 옛날의 聖人은 백성의 先覺者니 곧 '建極'이다. '임금과 스승을 세워 五倫을 펴서 그 庶民에게 준다'했느니 '倫'이 곧 '民彝'이다. 그리고 서민이 愛親敬長을 알아 능히 이 마음이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곧 極을 보존하는 것이다. 마땅히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을 얻는 것, 이것을 五福이라고 말한다. 몸이 혹 壽를 하지 못하나 이 마음이 壽를 하고 집이 혹 富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이 실로 富하면 비록 患亂이 있더라도 이 마음이 康寧하며, 쓰러지고 자 빠지고 아무리 바쁠 때라도 道에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攸好德'이다. 혹 나라를 위하여 죽는 일이나 혹 '殺身成仁'도 '考終命'이 된다. 오복을 논함에는 마땅히 사람의 一心을 논해야 하니 이 마음이 바르면 복이 아님이 없고 이 마음이 邪惡하면 화가 아닌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김성일은 이러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아들에게 가르쳤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종명'에 대한 해석이다. 집안에서 편안히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만이 '고종명'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죽거나 '살신성인'도 '고종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김성일의 가르침은 김성일의 학맥을 이은 학자들, 특히 장홍효, 이현일, 이상정, 유치명, 김도화, 김홍락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 2) 학봉학맥의 학문활동

李玄逸은 이황의 理氣說을 적극 옹호하고 李珥의 이기설을 조목조목 비판하였

30) 『鶴峯文集』附錄, 권3, 言行錄.

다. 그는 안동 임하의 琴韶에서 강학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현일의 아들 李栽 역시 금소에서 많은 학자를 양성하였다. 그는 『朱書講錄刊補』를 발간하여 『주자서절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작업 역시 주희와 이황의 학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였다.

李象靖은 세칭 '小退溪'로 이황의 학문을 가장 깊이 연구하여 발전시킨 인물이다. 이황의 이기설을 깊이 연구함은 물론이요, 『퇴계문집』의 편지를 선별하여 『退溪書節要』를 편찬하고, 「성학십도」의 「敬齋箴圖」를 연구하여 『敬齋箴集說』을 펴냈고, 이황이 김성일에게 써준 「병명」을 연구하여 『屏銘發揮』 등을 저술하였다.

이상정의 문인인 柳道源·李宗洙·金宗德·柳長源·金珩 등도 이황과 이상정의 학문을 충실히 계승하여 그 학문을 전파하여 나갔다. 이러한 김성일학맥은 이황 이후의 학통을 통하여 전해온 주자학에 철저하면서 『大學』·『中庸』·『心經』, 주희의 「玉山講義」와 「仁說」, 이상정의 성리설을 주로 강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理氣心性論과 仁義禮智論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고, 특히 그 학문은 '敬'을 주로 하였다.<sup>31)</sup>

안동지역의 김성일학맥은 이상정을 거쳐 유치명에 이르러 학문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柳致儼은 우리나라 성리학이 이황에 의해 집성되었는데, 전집이 방대하여 갑자기 연구하기 어려워 『퇴계서절요』 등이 편찬되었지만 아직도 넓은 바가 있어 요령을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 『溪訓輯要』를 지었다. 또한 그는 이상정의 『大山文集』과 『大山實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쉽게 그 방법을 궁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湖學輯成』을 만들었다.<sup>32)</sup>

31) 그 실례로 1846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유치명을 중심으로 고산정사에서 강회를 열었는데 이 고산정사에서 「옥산강의」의 강의를 통해 '인의예지'가 강론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萬山遺稿』 권4, 雜著, 高山講義). 한편 1856년 11월 호계서원에서 김성일학맥을 이은 柳致明·柳致皞·金健壽·李敦禹·李文稷 등 수백 명이 모여 강회를 열었다. 이들은 『심경』을 강회의 교재로 택했는데, 그것은 이황이래 안동유림의 『심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유치명·유치호·김건수 등과 유생들이 이 강회에서 『심경』을 강독하고 토론한 내용은 주로 心性理氣, 仁義禮智, 敬義, 義理 등이었다(『虎溪講錄』, 安東法興 固城李氏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 『肯庵文集』 권18, 行狀, 萬山柳公行狀.

김건수는 1857년 유치명이 晚愚亭을 건립하자 동문들을 모아 열흘동안 『퇴계문집』을 강독하였다. 그는 『퇴계문집』과 『대산문집』을 즐겨 보았는데 “이 두 책은 程朱의 諸書에 서로 表裏가 되니 진실로 여기에 종사하면 門路가 평탄하고 의리가 명백하여 저절로 향하는 바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3)</sup>

김도화는 유치명의 문하에서 『대학』과 『大學或問』을 배웠는데, 유치명은 김도화에게 ‘敬’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다.<sup>34)</sup> 김도화는 『대학』·『중용』 뿐만 아니라 「太極圖說」·「西銘」·「玉山講義」 대해서도 연구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홍락은 1847년 유치명에게 올린 편지에서 孝悌와 恭敬이 모두 일상생활에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나아가 궁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참되고 절실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공부를 함에 있어 大小와 精粗, 綱領과 條目을 불문하고 일제히 ‘敬’으로써 주를 삼아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sup>35)</sup>

1853년 김홍락은 『주자어류』·『주자서절요』를 읽었는데, 특히 『주자어류』의 「訓門人」의 글을 읽고 이듬해 「入學五圖」를 작성하였다.<sup>36)</sup> 이러한 인식 위에서 그는 立志·居敬·窮理·力行·總圖의 5도를 작성하여 학문에 들어가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居敬’과 ‘窮理’는 하나라도 폐할 수 없으며 수레의 두 바퀴와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하면서도 ‘居敬’을 급선무로 생각하였다.<sup>37)</sup>

33) 『肯庵文集』 권17, 行狀, 成均進士止庵金公行狀.

34) 『拓菴文集』 권9, 雜著, 記聞錄.

35) 『西山文集』 권2, 書, 上定齋先生 丁未.

36) 『西山文集』 권13, 雜著, 入學五圖.

37) 『西山文集』 권6, 書, 答黃應護 乙丑.

4. 퇴계-학봉학맥의 전개<sup>38)</sup>

1570년 이황이 작고한 후 10여 년 간은 이황의 학통으로 보면 혼돈기였다. 그것은 이황의 衣鉢이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9)</sup> 김성일은 이황의 사후 衣鉢을 전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送李逢原安道下第南歸」라는 글에서도 “衣鉢이 지금까지 부탁이 없으니 그대를千里나 보내면서 눈물이 종횡으로 흐르네.”라고 하였다.<sup>40)</sup> 그런데 1582년 김성일은 조목에게 大業을 힘써 연구하여 선생의 衣鉢의 傳함이 끝내 돌아가는 바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sup>41)</sup>

결국 조목이 도산서원 尙德祠에 배향됨으로써 사후 스승을 모시는 영광은 조목에게로 돌아갔다. 그것은 조목이 다른 동문에 비하여 나이로 보아 선배이고 이황과 고향이 같은 예안이고 이황 사후 『퇴계문집』을 주관하여 간행한데다, 후일 北人정권의 도움으로 상덕사에 배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목의 학맥은 안동지역에서 뚜렷하게 그 학통이 계승되지 못하고 대신 김성일의 학맥이 안동지역에서 가장 번창하였다. 그 이유는 김성일의 나주 목사 재임시절 이황의 여러 저서의 출간, 「병명」의 전수문제, 김성일학맥에서 이황의 학문을 충실히 계승하는 지속적인 학자의 출현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여기서 김성일의 학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학맥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황 이후부터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38) 鶴峯學脈의 傳統에 대해서는 李完載의 종합적인 연구, 정리가 참조된다(李完載, 「嶺南學派에 있어서 鶴峯先生의 位置」,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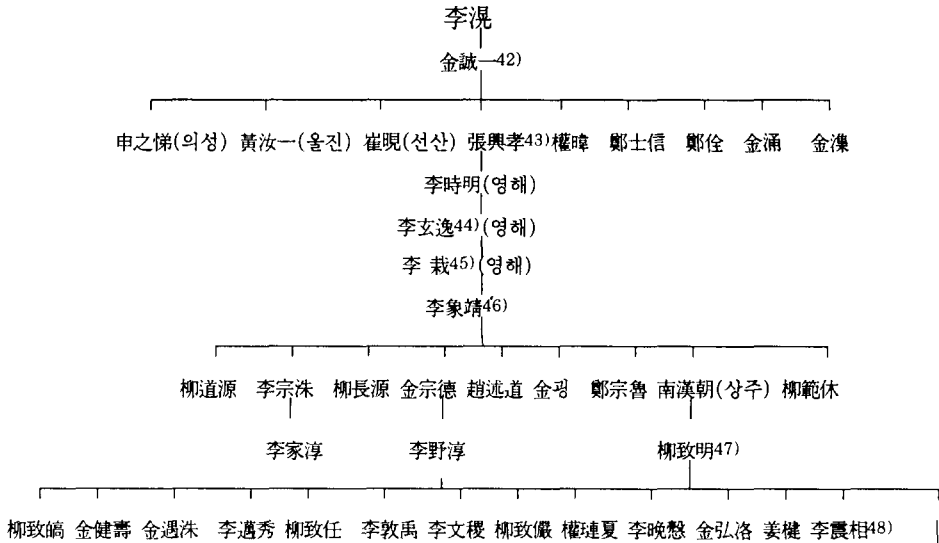
39) 『鶴峯續集』 권5, 祭文, 祭李直長逢原文 甲申.

40) 『鶴峯續集』 권1, 詩, 送李逢原安道下第南歸.

41) 『鶴峯文集』 권4, 書, 答趙月川 壬午.



○ 퇴계-학봉학맥의 전개도



- 42) 圖에 제시된 문인 외에 權行可(호는 梅湖, 진사 참봉, 權好文의 아들), 權暉(誠齋), 權旭(梅堂, 생원, 진사), 權山立(晚翠堂, 護軍) 등이 파악된다.
- 43) 장흥효의 문인 221명의 간략정보는 『敬堂別集』, 『敬堂先生及門諸賢錄』에 제시되어 있다.
- 44) 이현일의 문인의 지역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안동 72, 봉화 27, 영해·영양 각 19, 진주 17, 영주 13, 영천·의성 각 12, 서울·성주 각 11, 상주 10, 예천·칠곡 각 8, 밀양 6, 경주·대구 각 5, 거창·선산·순흥·원주·진보·함안 각 4, 고령·군위·산청 각 3, 용궁·창원·청도·충주·현풍 각 2, 기타 43명이다(『葛庵全集』 錦陽及門錄, 驪江出版社, 1986).
- 45) 이재의 문인 65명에 대한 간략정보는 『密庵全集』 錦水門人錄(驪江出版社, 1986)을 참조.
- 46) 이상정의 문인(총 274명)의 지역분포는 안동 94명, 의성 24명, 상주 11명, 예천 8명, 영주 7명, 순흥·선산 각 6명, 대구·단성·성주 각 5명, 영천·김천·성천 각 4명, 밀양 3명, 영해·창녕·칠곡·영양·서울·풍기·봉화·김해·군위·청도·함천 각 2명, 청송·고령·청양·경주·고성·거창·함안·홍해·진주 각 1명, 기타 57명이 수록되어 있다(『大山全書』 高山及門錄, 驪江出版社, 1990).
- 47) 유치명의 문인록에는 550명의 문인이 올라 있다. 그중 전주유씨가 96명(안동 수곡·박곡·대평·삼산·고천 등 거주), 의성김씨가 61명(金璉 후손 37명, 안동 천전·금계·임하·지례·망천 등 거주), 金宇宏 후손 16명, 봉화 해저 거주), 안동 권씨가 30명(權璉 후손 8명, 봉화 유곡 거주), 한산이씨가 13명(李弘祚 후손, 안동 소호 거주), 진성이씨가 13명(예안 하계·부포의인 등 거주), 고성이씨가 10명(안동 범흥 거주), 재령이씨가 6명(마동, 영양 석포 등 거주), 영천이씨가 6명(의성 산운 거주)을 차지한다. 이들 문인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경상도·전라도·경기도·평안도 등 분포가 다양하나 지역적으로 경상도 안동의 동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全州柳氏水谷派之文獻叢刊』 12, 安東水柳文獻刊行會, 1989).
- 48) 이진상의 대표적 문인은 郭種錫, 張錫英, 許愈, 金鎮祐, 尹胄夏, 李斗勳, 李承熙 등

金鐵誠 李楫 柳基鎬 金道和<sup>49)</sup> 柳止鎬 金碩奎 金興洛<sup>50)</sup> 金養鎭 金祖永 權世淵 李承穆 柳必永<sup>51)</sup>

이황은 1566년 김성일의 나이 29세 때에 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공자 이래 주희까지의 心學의 도통을 읊은 「屏銘」을 써주었다. 1612년 金涌은 이황이 일찍이 聖賢相傳의 心法을 서술하여 「병명」을 만들어 손수 깨끗하게 써서 김성일에게 주었으니 그 촉망과 기대가 다른 제자와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52)</sup>

김성일의 문인으로는 申之悌·黃汝一·崔暉·鄭士信·權曄·鄭侁·張興孝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김성일의 문인이 많지 않는 이유는 그가 출사하여 안동지역에서 학문활동을 한 시기가 길지 않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강학에만 힘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당대에 제자를 많이 양성하지는 못했지만 김성일의 학맥은 조선 후기부터 한말까지 안동지역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학맥을 형성하였다. 특히 안동지역에서는 무실의 전주유씨, 소호리의 한산이씨, 예안 하계의 진성이씨 등 세 집안이 김성일학맥의 철저한 핵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성일학맥 중 김용의 후손은 예안 상계까지 진출하여 그 지역적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이 김성일학맥은 다른 퇴계제자들의 학맥에 비해 매우 강한 혈

이다. 특히 곽종석의 문인은 현재 「侂門承教錄」(『侂字集』4, 亞細亞文化社, 1984)에 776명이 등재되어 있다. 곽종석의 우뚝한 제자로는 河龍濟, 張志淵, 河謙鎭(『晦峰集』下, 德谷師友淵源錄, 門人에 155명 등재), 李埴, 李寅梓, 李炳憲, 丁泰鎭, 金思鎭, 金昌淑, 金槐(『重齋文集附錄』14, 及門錄에 956명 등재), 崔益翰 등이 있다.

49) 김도화의 대표적 문인은 金紹洛, 柳鳳熙, 柳寅植, 宋基植 등이다. 『拓庵文集』附錄, 及門錄에 실려 있는 김도화의 문인은 모두 322명이다.

50) 김홍락의 대표적인 문인은 金溁模, 崔桓, 李象義(相龍), 柳淵博, 崔正基, 柳廷鎬, 李中輓, 柳淵楫, 柳鳳熙, 李中業, 盧相稷, 柳淵根, 金秉宗, 李貞基, 柳晦植, 金東鎭, 宋浚弼, 曹兢變, 金紹洛, 宋基植 등이다. 현재 『輔仁稷帖』(『西山全集』, 西山全集刊行會, 1982)에는 모두 705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안동지역 인물이 200여 명이 훨씬 넘고, 그중에서도 의성김씨가 약 130명에 이른다.

51) 유필영의 학문은 아들 柳寅植으로 전해졌다.

52) 『雲川文集』 권5, 言行錄.

연적, 지역적, 학문적 동질감을 갖고 있었다.

장홍효는 김성일과 같은 금계출신이고, 철저히 '敬'에 힘쓴 학자로 易學에도 정통하였다고 한다. 그는 김성일 사후 유성룡의 문하에도 출입하였고 鄭述에게도 배웠다. 그의 외손이 바로 이취일·이현일이어서 자연 김성일의 학맥을 이어 주는 주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현일 형제는 장홍효의 외손자였지만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황학맥의 전개에서 보면 장홍효로부터 직접 학문을 전수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버지 李時明을 통하여 이취일·이현일 형제에게 이황-김성일-장홍효의 학맥이 전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장홍효의 문인록인 '及門諸賢錄'에는 모두 221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취일과 이현일의 이름은 여기에 올라 있지 않고 장홍효의 사위이고 이현일의 아버지인 이시명과 이시명의 장자 이상일만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김성일학맥은 의성(신지계), 울진(황여일), 선산(최현) 등으로 전파되어 갔다. 그 일례로 선산의 崔桓이 金興洛의 行錄을 지었는데 이는 바로 최현이 김성일의 「언행록」을 지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황의 학통이 김성일로 전해졌다는 것은 이현일에 의하여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황의 학통에 있어서는 “老先生(퇴계)이 손수 堯·舜·禹·湯·文王·武王·周公·孔子·顔子·曾子·子思·孟子·周敦頤·程顥·程頤·朱熹의 서로 전한 心法의 要言 旨訣을 써서 학봉 金文忠公에게 주었으니 그 은미한 뜻이 있는 바를 알 수 있다.”고 하여 이황-김성일의 학맥을 心法이 전수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53)</sup>

이현일의 학통은 아들 이재에 의해 이상정으로 전수된다. 이현일이 안동의 임하 금소에서 강학했는데, 이재 역시 금소에서 강학했다. 이현일·이재 부자가 안동 금소에서 강학한 것은 안동이 이황학문의 본산인데다 이현일의 외가가 안동 금계이고, 이재의 처가가 안동 임하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현일에 의해

53) 『葛庵文集』 권21, 跋, 書外大父敬堂張公遺集後.

김성일학맥은 안동지역을 벗어나 영남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현일의 외증손인 이상정은 이황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김성일이 그 학통을 이었다고 하였다. 이상정은 이황이 김성일에게 써 준 「題金士純屏銘」<sup>54)</sup>의 의미를 해석하여 『屏銘發揮』를 저술하여 이황의 학통은 김성일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sup>55)</sup> 유치명도 이황 이후 학통에 대해서 이황이 「屏銘」을 지어 김성일에게 써 준 것이 隱微한 뜻이 있다고 하였다.<sup>56)</sup> 이것 역시 이황의 학통이 김성일에게 전해졌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정 사후 이상정의 문인들과 동생 李光靖은 이상정을 이황의 적전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정은 이황의 학문을 충실히 계승하였고, 『퇴계서절요』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광정은 이상정의 행장에서 “비록 퇴계의 적전이라고 말할지라도 可하다.”라고 규정했던 것이다.<sup>57)</sup>

한편 이상정의 학통은 柳道源·李宗洙·金宗德·柳長源·趙述道·鄭宗魯·金평 등이 이어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유도원은 『退溪文集攷證』을 지어 『퇴계문집』연구에 대한 길잡이를 제시하였고, 유장원은 『常變通攷』를 지어 常禮와 變禮를 종합하여 그동안 분분하던 예설을 집성하였다. 그런데 이상정의 학통은 유장원과 南漢朝를 통하여 유치명에게 전해졌다. 유치명은 이상정으로부터 받은 이상정의 학문, 이른바 ‘湖學’을 더욱 천명하였다.

유치명의 우뚝한 제자로는 柳致皜·柳致任·金健壽·李敦禹·李文稷·柳致儼·柳致游·權璉夏·柳基鎬·李晚慤·金道和·金興洛·柳必永 등을 들 수 있다. 유치호는 1823년에 유치명의 문하에 입문하였고, 이상정의 현손인 이돈우는 1831년에 유치명이 고산정사에 학생을 선발할 때 입문하였다. 그리고 김성일의 종손 김홍락은 1845년에 입문하여 『論語』와 『家禮』를 배우고, 『大學或問』과 四端七情說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김평의 증손 김도화는

54) 『退溪文集』 권44. 箴銘, 題金士純屏銘.

55) 「屏銘」의 내용에 대해서는 李完裁의 자세한 분석이 있다(李完裁, 「嶺南學派에 있어서 鶴峯先生의 位置」,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1993).

56) 『定齋文集』附錄 권4, 語錄.

57) 『大山實紀』 권2, 行狀.

1849년에 입문하였고, 柳必永은 1852년에 입문하여 『大學』을 배웠다.

우선 유치명의 문인 중에 주목해야 할 인물은 유치호이다. 유치호는 학통의식이 특히 강하여 이황이 김성일에게 써준 「병명」에 주목하였다. 임하의 동쪽 30리에 위치한 납실(猿谷)은 김성일의 別業이 있던 곳인데 김성일이 이곳에 살 때 이황으로부터 「병명」을 받았다. 유치호는 이 유서 깊은 김성일의 유허지에 중국의 '太極書院'을 본떠 '屏銘書院'을 세울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문중에 그러한 취지를 담은 글을 돌리고 유립과 收議하여 襖를 만들고 기금을 모으기도 하였다.<sup>58)</sup>

유치임(1805~1876)은 1864년 김성일을 모신 임천서원의 請額疏를 올릴 때 소수를 맡았다. 1868년 서원훼철령이 내리고 1871년 정부에서 호계서원을 훼철하려고 하자 유치임은 바로 士友들과 함께 철거되는 화를 완화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구금되기도 하였다.<sup>59)</sup>

유치명의 제자 이돈우는 이상정의 현손으로 이상정 이후 안동지역에서 누대 '秉筆'의 집안이었다. 그는 소호리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길렀고 동문들과 때때로 『퇴계문집』·『대산문집』 등을 강론했다.

유치엄(1810~1876)은 이상정의 고제인 유범휴의 손자이자 이상정의 외증손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주유씨와 한산이씨의 가학을 잘 이을 수 있었다.<sup>60)</sup> 1845년 가을 유치명이 『대산실기』를 편찬했는데 유치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협찬하였다.

김건수는 1843년 유치명의 제자가 되었다. 1856년 호계서원에서 강회를 열었는데, 柳致皜와 함께 講席을 주관하여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리고 김홍락과 함께 기금을 내어 義莊을 설립하여 흉년에 기아에 대비하게 하였다.

유기호(1823~1886)는 1864년 임천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일로 상소운동을 전개했는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그는 또 1870년 겨울에 임천서원

58) 『東林集』 권11, 附錄, 行狀.

59) 『肯庵文集』 권17, 行狀, 處士起軒柳公行狀.

60) 『肯庵文集』 권18, 行狀, 萬山柳公行狀.

청약운동을 전개하다가 강원도의 김화에 유배되었다. 1881년 嶺南萬人疏가 일어나고 李載先事件이 일어나자 嶺儒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수배되었고, 1882년에는 3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885년에도 2개월간 옥고를 치렀다.<sup>61)</sup>

한편 유치임·김건수·이돈우·유치호·이문직 등 유치명의 문인중의 선배들이 작고하고 19세기 말에는 金道和와 金興洛이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김성일학맥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김홍락은 김성일의 11대 종손으로 태어나 이상정과 유치명을 통하여 이황의 학통과 학문을 충실히 계승한 학자로 칭송되었다. 김홍락의 문인으로는 李相龍·李中業·柳淵博 등 안동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金東鎭·盧相稷·宋浚弼·曹兢燮·崔正基 등이 있어 안동을 벗어나 순흥·창녕·성주·진주 등 그 지역적 범위를 넓혀갔고 일부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김도화는 이상정→남한조→유치명의 학통을 이으면서, 정종로·남한조의 학통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김도화의 문하에서는 柳鳳熙·柳寅植 등이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성일학맥은 일제강점기하에서도 유럽들의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필영·유연박 등이 파리장서에 서명하였고, 이상룡·유인식·김동삼 등이 이 김성일학맥에서 영향을 받아 활동한 인물들이다.

한편 김성일학맥은 조선 말기에는 李震相이 유치명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뒤 郭鍾錫-金梔으로 학맥이 전해졌다. 한때 이진상의 '心卽理'설이 이황의 '心合理氣'설에 배치된다 하여 이진상의 『理學綜要』가 상주에서 불태워지지도 하였으나 다시 이황의 학설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되어져 이황-김성일학맥을 이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61) 『西山文集』 권24, 行狀, 石隱處士柳公行狀.

## 5. 맺는 말

김성일의 학문은 안으로는 가학인 아버지 김진의 가르침과 밖으로는 스승 이황의 깊은 학문적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진은 청송의 權幹의 문인이었다. 김진의 자제교육의 배경에는 권간을 통해 받은 교육의 영향이 매우 컸다. 바로 김진이 내앞 傅巖에 서당을 세우자 김성일이 그 서당에서 공부하고 그뒤 이황의 문하에 출입하여 학문적으로 성공한 뒤 그 학맥은 안동 금계에서 꽃이 피어 시간이 지날수록 번창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실로 장홍효가 금계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김성일의 학문을 전하였다. 이어 장홍효의 외손자인 이현일이 안동의 임하 금소에서 강학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그뒤 김성일 학맥은 안동의 남쪽으로는 일직의 소호리로 전파되어 나갔고, 동쪽으로는 임동의 한들로, 서북쪽으로는 예안 하계와 봉화 닭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보하여 나갔다. 즉 소호리에서 이상정이, 한들에서 유치명이 강학을 통하여 그 학맥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었다. 또한 예안 하계가 김성일 학맥에 속함으로써 그 지역적 범위는 안동의 동서남북으로 확산되어 갔다.

또한 김성일학맥은 성주 한계의 이진상을 거쳐 곽종석을 경유하여 김황에 이르기까지 계승발전하여 나갔다. 따라서 이 학맥은 안동을 중심으로 경상도 전역을 망라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황-김성일의 학맥은 장홍효로부터 유치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외손으로 학통이 이어져 내려왔다. 여기서 김홍락을 유치명의 학통을 이은 대표적인 유학자로 보면, 김성일부터 면면히 전해 오던 학문을 김홍락이 마무리한 셈이어서 강한 가학적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안동지역은 이황의 嫡傳이 누구인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김성일학맥내에서 이황학통의 적전을 암시하는 소재로 이해되었던 「屏銘」은 구체적으로 金涌·崔暉·李玄逸 등에 의해 이황에서 김성일로 그 학통이 전해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李象靖에 의해 『屏銘發揮』가 이루어지고, 李野淳이 「屏銘圖」를 그렸으며, 柳致儼은 「屏銘發揮圖」를 그려 학

통의 전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적전 의식과 더불어 김성일학맥은 이황의 학문을 충실히 정리하여 발전시켰다. 이황의 학문에 대한 정리작업은 이미 김성일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의 나주목사 재임시절 『성학십도』·『계산잡영』·『퇴계자성록』·『주자서절요』·『향교예집』·『의례도』 등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그뒤 이현일이 이황의 이기론을 전적으로 지지옹호하면서 이이의 이기설을 조목조목 비판하였고, 그의 아들 이재는 『주서강록간보』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상정은 『퇴계서절요』·『경재잡집설』 등을 간행했으니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모두 이황의 학문체계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김성일학맥은 조선 후기 이래 줄곧 유소나 척사운동, 의병운동,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사가 많이 나왔다. 물론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이 학맥의 인물들이 이황의 성리학의 理氣心性論이나 仁義禮智論, 誠·敬 등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체득을 통한 의식이 터전하고 있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성일의 이황학문의 전수와 실천적 학문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즉 김성일이 '考終命'의 해석에서 '殺身成仁'을 그 범위에 넣기도 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글을 읽은 선비의 길이라는 것을 자제들과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신부터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그 교육은 이 학맥에 더욱 생명력을 불어넣어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